

COME & SEE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 면류관 가지고(찬25/새25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최동주 집사 2부/구윤모 장로 3부/최호경 집사 4부/김도윤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물 위를 걷는 자(홍지열 편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유아 세례식(1부) Infant Baptism Noel Gong **공시우**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누가복음(Luke) 7:11-17 Al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6:1-15
-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Come & See 미라클(4) 과부 어머니가 독자를 잃고 울 때

4부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19) 네 번째 표적: 거리낌과 기꺼움 사이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주 안에 있는 나에게(찬455/새370장),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
-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신앙은 선택이다

Faith is a Choice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최근 버지니아주 한 가정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엘리트 부부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 비극적인 선택으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두 자녀가 함께 있던 집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이 부부는 명문 대학에서 만나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위기와 갈등 앞에서, 그들이 내린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남겨진 자녀들이 겪었을 충격과 상처를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삶도 결코 순탄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아픔과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인내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를 선택합니다. 어떤 이는 용서를 택하고, 어떤 이는 분노를 붙입니다. 바로 그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신앙생활 역시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선택을 하기도 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의 안락함 대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며 분명 한 믿음의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거창한 결단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됩니다. 누구와 가까이할지 친구를 선택하는 일,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할지 외면할지 결정하는 순간, 해야 할 말을 할지, 침묵해야 할지를 분별하는 선택, 유혹 앞에서 물러설지, 믿음을 지킬지를 결정하는 순간들—이 모든 것이 신앙의 선택입니다. 때로 우리는 감정에 이끌려 쉽게 선택하려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상황이나 말썽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쌓여 우리의 삶을 만들고, 결국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선택의 자리에서 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분노가 아니라 용서를, 포기가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선택입니다. 오늘도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The recent tragic incident involving a family in Virginia weighs heavily on our hearts. An elite couple with promising futures, unable to cope with their conflicts, ultimately made a tragic choice that tore their family apart. This event, occurring in a home where their two children were present, is more than just an individual matter; it is a heartbreaking example of how a single moment's choice can lead to devastating consequences. This couple met at a prestigious university and achieved success in their respective fields, earning the envy of many. However, faced with unexpected crises and conflict, the choice they made led to an irreversible tragedy. It is even more painful to imagine the shock and trauma the children left behind must have endured.

Our lives are never entirely smooth. Everyone lives through varying degrees of pain and conflict. What matters is not the situation itself, but the choice we make in that moment. In the face of the same hardship, some choose perseverance while others choose to give up. Some choose forgiveness, while others hold onto anger. Those very choices determine the direction of our lives. The life of faith is also a continuous series of choices. In his fear, Abraham chose to lie by calling his wife his sister, yet he also made the choice of faith to hold onto God's promise. Moses chose to suffer with the people of God rather than enjoy the comforts of the Egyptian palace. Joshua made a clear choice of faith, confessing, "As for me and my household, we will serve the Lord."

These choices are not made only through grand resolutions; they are repeated in our daily lives. Choosing which friends to keep close, deciding whether to forgive or turn away when hurt, discerning whether to speak up or remain silent, and deciding whether to give in to temptation or keep the faith—all of these are choices of faith. Sometimes, we are tempted to choose based on our emotions. However, a person of faith must choose by faith, not by feeling. We must choose based on the Word, not the circumstances. These accumulated choices build our lives and ultimately impact our families and the generations to come. Today, we stand once again at the crossroads of choice. We must choose hope over despair, forgiveness over anger, faith over giving up. Faith is not merely a thought or a feeling; it is a choice to decide, in every moment, to move toward God. I hope that today, through those choices, we may live lives that are pleasing to Him.



주일 설교 시리즈
COME & SEE
미라클 (4)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과부 어머니가 독자를 잃고 울 때
(눅 7:11-17)

1. 언제 가장 서글프게 울었던 적이 있나요? 울면서 보았던 영화라도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2. 성경에서 우는 이야기를 설교하실 때, 제일 마음에 와닿는 눈물의 현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창 23:2, 삼하 18:33, 창 42:22-24, 왕하 20:5, 눅 22:61, 계 7:16-17 등)

3. 나인성 과부의 눈물의 의미를 아래 세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1) _____

2) _____ (참고/시 68:5)

3) _____ (참고/신 24:18)

4. 누가복음 6장이 나인성 과부에게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눅 6:20-21)

5. 15절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시니' 의미를 참고 구절을 통해서 나누어 봅시다. (참고/ 고후 5:21, 엡 2:1-5)

적용하기



선교
디아스포라 선교대회

은혜로운 만남

선교사와의 만남

5.2 (토) 10:00 AM - 12:00 PM



세계 각지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의 생생한 사역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니비사우 | 니카라과 | 몽골 | 베트남 | 브라질 | SWM | 온두라스 | 우간다 | 우즈벱 | 이스라엘
일본 | J국 | 조지아 | 캄보디아 | 코스타리카 | K국 | 탄자니아 | 태국 | T국

세계 각지에서 오신 파송/협력 선교사님들의 생생한 사역 현장을 가까이서 만나는 귀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누군가 찾아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큰 격려와 위로는 없습니다.

아래 참여 순서 및 방법 안내를 따라 참여해 주세요.
① 선교지 선택하기: 5월 2일(토) OICOS 예배 종료 후(오전 7시 30분 경), 코트야드 배부처에서 본인이 방문하고 싶은 선교사를 직접 선택하여 총 4군데를 참석하게 됩니다..

② 1차 방문(오전 10시-10시 25분): 지정표 1

차에 적합한 방으로 이동하세요. 선교사님의 15분 선교 보고를 듣고, 10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종료 안내가 나오면 5분 안에 지정표 2차에 적합한 방으로 이동합니다.

③ 2차 방문(오전 10시 30분-10시 55분): 새로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종료 안내가 나오면 지정표 3차에 적합한 방으로 이동하세요.

④ 3차 방문(오전 11시-11시 25분): 11시부터 새로운 선교사님 10팀이 교체됩니다. 종료 안내가 나오면 지정표 4차에 적합한 방으로 이동하세요.

⑤ 4차 방문(오전 11시 30분-11시 55분): 마지막 세션입니다.

지정표에 적힌 방으로만 입장 가능합니다. 모든 성도가 골고루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율 이동은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복도에 청년부 스태프가 배치되어 이동을 안내해 드립니다. 2시간 동안 네 분의 선교사님을 만나며 선교 현장의 감동을 함께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일시: 5월 2일(토) 오전 10시-오후 12시

■ 장소: 비전센터 - ①유년부실 ②비전채플

③임마누엘 ④할렐루야 ⑤쥬이 ⑥살롬 ⑦목회실 ⑧109호

본당 - ⑨2층-찬양채플 ⑩2층 - 컨퍼런스룸

■ 문의: 황세현 장로 (949) 648-1907

이충경 목사 (949)537-6968

선교 후기 니카라과



서 목사님과 9명의 일행은 4월 13일 새벽 3시, 공항까지 버스 운전을 위해 휴가까지 내신 집사님의 감사한 헌신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떠나기 전부터 팀원들은 극심한 탈수 증세, 어지럼증, 무력감, 약몽, 불면증, 지갑 분실, 아픈 자녀 등 여러 영적 공격과 싸워야 했지만, 기도로 하나하나 극복하며 낙오자 없이 다 같이 갈 수 있었습니다.

니카라과 입국 시에 제일 큰 기도 제목은 악명 높은 세관을 통과하는 것이었는데, 모든 의약품과 선교 물품들이 단 36달러의 세금만으로 전혀

섬김과 위로의 시간

압수되지 않고 통과된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현지 선교사님조차 처음 있는 일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마나구아 공항에서 차로 2시간쯤 떨어진 선교 센터에 새벽 1시쯤 도착해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26년간의 선교 기간 동안 26개 현지 교회를 세우신 선교사님의 인도로 다음 날 아침부터 매일 약 80명을 대상으로 의료 선교, 안경 사역, 약품 분배, 사진 촬영, 풍선 아트, 복음 팔찌 전도 등 다양한 사역을 매일 다른 현지 교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사역이 일찍 끝나 계획에 없던 가정 방문 전도를 했던 것은 이번 선교 중 가장 큰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흠뻑 뿜어낸 벽 위에 양철 지붕으로만 세워진 흠바닥의 허름한 집들이었지만, 다른 나라에서 온 낯선 사람들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먼지를 털어가며 내어주는 호의를 받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섭리임을 팀원 모두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도에 이르는 습하고 더운 날씨 속에서도 각자 맡은 사역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 된 팀워크를 이루었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께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섬김과 위로를 받는 재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복음 팔찌를 자비로 만들어주시는 권사님, 각종 반찬과 스낵을 만들어 주신 권사님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등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모여져 함께 이루어졌음을 느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난 짧은 선교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김혜영 권사

셀 사역
기도문

백부장의 믿음을 닮게 하소서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셀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우리 모두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의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믿음과 성숙한 인격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그대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질서를 존중하며 주권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세상이 흐드는 가치관 속에서도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먼저 인정하는 영적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처럼,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인생의 거친 파도를 당당히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둘째, 실력 위에 겸손의 옷을 입은 성숙한 리더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지위

가 높아지고 역량이 커질수록,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고, 세상 앞에서는 말씀의 확신으로 무장하여 당당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셋째, 사람을 귀히 여기며 아픔을 공감하는 따뜻한 리더가 되게 하소서.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았던 백부장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의 성품이 되게 하소서. 경쟁과 성공만을 쫓는 리더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목자와 같은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넷째,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소서. 자녀들이 공부하는 현장에서, 직

장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함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 생생한 간증이 자녀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칭찬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셀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들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명선 권사(Together셀)



사역 소개
GMMA

의료선교대회로 초대



GMMA(Global Medical Missions Alliance)는 한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의료 선교사들에게 빛진 마음으로,

2006년 한미의료선교회(Korean-American Missions Health Council)라는 이름으로 미주에 의료선교회가 세워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주 의료인들이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베델교회에서 열린 제1회 한미의료선교대회를 시작으로 각 지역 교회와 연합하여 매 2년마다 의료선교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다양한 선교에 참여하여 선교 현장



의 필요를 채우며 다음 세대에 삶 경험을 나누고자 여러 단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중심의 선교적 삶을 살자'는 사명을 지닌 GMMA 멘토들의 섬김을 통해 미국 전역의 동부, 중부, 서부 3개 지역과 캐나다, 호주 그리고 한국까지 현재 45개가 넘는 GMMA 대학 챕터들을 허락하셨고, 수많은 젊은이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의 온전한 치유의 길인 복음에 대한 열정을 일으키시며 세계 선교를 위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2026 GMMA 의료선교대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 3:16) 말씀을 주제로 6월 25일(목) 세미나, 6월 26일(금)-27일(토)은 컨퍼런스 일정으로 베델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선교대회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 주고 나누어 줄 일꾼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며, 정체성의 혼란, 중독, 정신 문제, 관계의 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됨으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재헌신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Come and See!'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며 성령을 부어 주실 이 천국 잔치에 베델교회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또 주변의 친지, 친구, 동료 의료인들을 저희 선교대회에 초대해 주셔서, 다음 세대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베델 성도님들의 참여와 헌신, 섬김을 통해 계속되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용중 집사

목회자 소개
BYM 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2013년 9월, 부모님을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정착한 교회는 베델교회였고, 초등부부터 중고등부를 거치며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베델교회에서 신앙을 키워가는 과정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중고등부로 올라가면서 전도사님이 여섯 번이나 바뀌는 상황을 겪었고, 코로나 시기까지 겹치면서 신앙의 길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참여했지만, 중등부 학생들이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 하나님은 이 학생들만 사랑하시는 걸까?"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제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과 나누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살아가며 단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제 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My greatest joy is to witness others come to Christ." 이 고백으로 저는 사역자의 길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신학교로 진학하였고, 제가 자란 베델교회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중등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기에 아직도 믿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여전히 있지만, 이 일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재민 전도사

겉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던 중,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전도사님께서 중등부 멕시코 선교에 참여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신앙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 사진과 영상만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록하는 마음으로

대학에 다니며 신앙과 믿음을 키워가는 과정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만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기쁨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성례
세례 간증

만남으로 얻은 평안

초등학교 시절, 교회를 다니던 친구의 권유로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하며 처음으로 교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는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친구들과 어울리는 즐거움 속에서 시간을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 없이 제 생각과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며, 삶의 중심은 언제나 제 자신이었습니다. 이후 45세의 늦은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면서 낯선 환경과 문화, 익숙하지 않은 언어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지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또한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제 마음을 짓누르던 염려가 마치 영겨 있던 실타래가 풀리듯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심을 분명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랑목장 셀모임에서 만난 형제 자매님들의 진심 어린 기도와 사랑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는 따뜻한 위로로 저를 붙들어 주셨으며, 함께 나누는 식사와 교제 속에서는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깊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저를 불러 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러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배경인

그때 지인의 따뜻한 전도로 저와 제 가족은 베델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마음

무엇보다 저는 더 이상 제 힘으로만 살아가려 애 쓰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매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화평/온유/섬김: 박성권 목사
-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 믿음/새가족/QTin: 조동현 목사
- 은혜/예배/BCA: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예상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상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상채플: 이형석 목사
- 예상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환우: 정티나 목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상 위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안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이너: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디아스포라 선교대회



2022년 조지아 티빌리시 선교대회의 감동과 복음의 열정을 이어, 베델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며 주제인 '희년의 기쁨, 열방을 향해'라는 가치 아래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목적은 세계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오신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과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섬과 선교의 새로운 접촉점을 마련하여 미래의 선교적 네트워크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의 선교 발자취를 돌아보고, 다가올 50년을 준비하며 선교의 비전을 확장하여 디아스포라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을 다시금 고취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베델의 모든 성도가 지난 50년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베델의 성도님들이 기도와 섬김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 교회가 준비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을 맞이할 때, 예수님의 사랑과 비전을 경험하고 우리 안의 열정 또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며, 희년의 기쁨을 전하는 축복의 여정에 베델 가족 모두를 초대합니다.

- ▶ 기간/장소: 4월 30일(목)-5월 3일(주일), 베델교회
- ▶ 집회 일정: 4월 30일(목) 저녁 집회-오후 7시 30분
5월 1일(금) 새벽 집회-오전 5시 30분, 저녁 집회-오후 7시 30분
5월 2일(토) 특별 오이코스-오전 6시, 저녁 집회-오후 7시 30분
- ▶ 주제 특강 및 선교사와의 만남: 5월 2일(토) 오전 9시-오후 12시
- ▶ 문의: 박원규 장로 (949)433-0557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5월)	5/3:	①부-최재호	②부-이명환	③부-황인수	④부-최현우
	5/10:	①부-권조원	②부-권순렬	③부-최두현	④부-이지원
	5/17:	①부-김광영	②부-곽태일	③부-김도석	④부-김지인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5월)	5/2: 김교식	5/9: 서덕령	5/16: 석민석	5/23: 손세진
강단꽃(4,5월)	4/26: 오영옥	5/3: 노성애, 전정례	5/10: 이선옥	5/17: 이인철, 임명신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최인섭(치과), 간호사-박필연 다음주 | 의사-김혜선(소아과), 간호사-채수정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색(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장)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 Come and See 50! '희년의 기쁨, 열방을 향해 베델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 각국의 파송·협력 선교사와 디아스포라 이민 목회자 100여 분을 모시고 미션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 선교지의 현신과 이민 목회의 열정이 만나 사역적 시너지를 일으키는 '선교의 접점'이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희년의 잔치에 베델의 모든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기간/장소: 4월 30일(목)~5월 3일(주일), 베델교회 (집회 시간 7면 참고)



◆ **수요 저녁예배 변경 안내** 이번 주 4월 29일(수) 수요 저녁예배는 4월 30일(목)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로 대신 드려집니다. 미션 컨퍼런스 첫날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4월 30일(목) 저녁 7시 30분
말씀: 오정현 목사(로마서 5:1-11, 우리는 어떤 복음을 선포해야 하나?)

◆ **주빌리 페스티벌 및 교회학교 저녁 특별 집회** 싱그러운 5월의 첫날, 우리 아이들과 가정이 함께 웃고 예배하며 행복한 추억을 쌓는 '주빌리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빌리 페스티벌은 다음 세대들과 함께 베델교회의 희년을 함께 기뻐하며 즐기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맛있는 음식과 신나는 놀이, 그리고 깊은 은혜가 있는 이 자리에 소중한 분들과 함께 발걸음해 주세요.
(주빌리 페스티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행복한 축제)
- 일시/대상: 5월 1일(금) 오후 5시부터 7시 15분까지, 교회학교 자녀들과 모든 가정
- 즐길 거리: 바운스 하우스, 음식 및 음료, 풍선 아트, 네일 아트, 포토부스
(저녁 특별 집회: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
- 일시: 5월 1일(금) 오후 7시 30분-9시 15분
- 예배 장소: 영유아 & 유치부-할렐루야 채플, K-5 -체육관, BYM & CIM-비전채플

◆ **특별 오이코스(OICOS) 예배 및 엘리사 새벽기도회** 이번 오이코스는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선교사와 목회자,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또한 주중에는 충성 & Joy 목장을 중심으로 엘리사 새벽기도회가 진행되며, 오이코스 당일에는 특별한 래플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 교회 성도님들을 초대하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엘리사 새벽기도회 일시/장소: 4월 28일(화)~30일(목) 오전 5시 30분, 본당
엘리사 새벽기도회 대상: 충성 & Joy 목장(서동민 목사 담당)
특별 오이코스 예배 일시/장소: 5월 2일(토) 오전 6시, 본당

◆ **큐티인 5월호 판매** QTin 5월호가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말씀으로 채우시는 5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 **'선교사와의 만남'에 초대합니다.** 누군가 찾아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큰 격려와 위로는 없습니다. 파송·협력 선교사와 만남의 시간을 통해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4면상 참고) 일시: 5월 2일(토) 오전 10시

◆ **102차 베델동산 모집** 102차 베델동산이 아직 참가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개최됩니다. 기쁨으로 섬겨주실 봉사자도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일시: 5월 22일(금)~24일(주일)
문의: 김병주 장로 (949)554-5581, 김성균 집사 (949)838-4110



◆ **교회학교 VBS 등록** 2026 VBS 등록이 진행 중입니다. 타 교인들도 등록하실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올해 여름에도 모든 베델의 자녀들이 VBS를 통해 뜨겁게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일정: 영유아유치 VBS 6월 9일(화)~12일(금), K-5 VBS 6월 16일(화)~20일(토)
등록/문의: register.bkc.org, 각 부서 전도사

◆ **'Promises of Purity' 자녀 성경적 성교육 학부모 세미나** 성경적 성교육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녀의 정체성과 가치관,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교육입니다. '나이별 성경적 성교육'과 '미디어와의 전쟁'을 주제로 PNG 이진아 대표와 함께하는 귀한 세미나의 자리에 모든 교육부 학부모를 초대합니다.
일시/장소: 5월 18일(월)~5월 19일(화) 저녁 7-9시, 비전채플
대상/문의: 교회학교 학부모, 이신디 전도사 (213) 335-9049



◆ **캄보디아/태국 단기선교 팀원 모집** 8월에 진행되는 단기선교 팀원을 모집하오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캄보디아(황순현/황현주 선교사)
기간/문의: 8월 4일(화)~11일(화), 김태원 장로 (760)707-7070
- 태국(박상선/신영선 선교사)
기간/문의: 8월 10일(월)~18일(화), 김재호 집사 (714)512-7095

◆ **축하해 주세요**
오늘 1부 예배에 공병주 전도사/김상희 사모의 아들 공시우(Noel)의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이신곤 집사님(이 원 집사의 부친)께서 4월 21일(화)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WANA(어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중,고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아기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편집장: 김경자 권사 기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사진 기자: 박성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번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1. Was there a time when you cried most sorrowfully? Please share if there's a movie you watched while crying.

2. When listening to the pastor preaching stories of weeping in the bible, which story depicting the scene of tears resonate with you the most? (Ref: Gen 23:2, 2 Sam 18:33, Gen 42:22-24, 2 Kings 20:5, Luke 22:61, Rev 7:16-17, etc.)

3. Let's summarize the meaning of the widow's tears in the town of Nain in the following three points.

1) _____

2) _____ (Ref: Psalms 68:5)

3) _____ (Ref: Deut 24:18)

4. What is the message that Luke chapter 6 gives to the widow of Nain? (Ref: Luke 6:20-21)

5. Let us discuss the meaning of v.15, "Jesus gave him to his mother", using the referenced verses. (Ref: 2 Cor 5:21, Eph 2:1-5)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